

전 남

“추태·비리... 광양시정 총체적 난맥”

시민단체협의회 이성웅시장에 직격탄
시정혁신단·시민감사관제 도입 촉구

민선 5기 광양 시정이 흔들리고 있다. 광양 시민단체협의회는 부실 시정 운영에 대해 민선 5기 이상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27일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지방교부세 감액문제와 신금산단 문제를 비롯해 ▲인사문제 ▲광양수영장 운영자 미선정 ▲공유수면매립지 광양 탱크터미널 행정소송 패소 ▲백운산 서울대 연습대 소유권문제 ▲위

생처리사업소 계근대 조작 의혹과 폭행사건 ▲공무원의 역대 도박사건 등을 부실행정 사례로 꼽았다. 시민협은 이 시장과 광양시 공무원들에게 “광양시민은 섬김의 대상인가, 정책의 당위성을 얻기 위한 동원 대상인가”라면서 “시민이 뽑아준 시장은 공무원들의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여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광양 100년 대계를 이야기한다”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부실행정에 대해 단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근본적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인사시스템이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시민협은 시민, 시의회, 행정가, 외부전문가 등 각 영역에서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 추진단’과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이 시장에게 요구하며 최근 실망을 준 총체적 행정 부실문제와 시장으로서 시정혁신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문성필 시민협 사무국장은 “시정혁신추진단과 시민 감사관 제도는 자

원봉사개념의 주민참여 제도로 시민이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가 표방하는 열린 행정과도 부합하면서 시정혁신과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제도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민협은 그동안 시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 추진, 개방형 감사 시스템 제안, 각종 위원회 점검 및 개선요구, 시장과의 대화 회의, 시의회 및 시청 실과 방문을 통한 행정 점검 요구 등 다양한 시 행정의 문제점 지적과 생각하는 행정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 /동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pyj4079@



태풍이 빚어낸 장관 제5호 태풍 ‘메이리’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남읍 금강산(해발 481m) 중턱에 있는 금강폭포가 시원한 물줄기 뿜어내고 있다. 금강폭포는 ‘해남 팔경’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해남군 제공>

영광원전 대피시설 확보
주변 10km서 16km로 확대

30일 안전점검 설명회

비공개 진행에 따른 주민반발로 무산됐던 영광원전 안전점검 주민설명회가 30일 영광읍 한전문화회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설명회가 장승평 총괄위원회 위원장의 발표로 진행된다. 안전점검단은 이날 ▲지진에 의한 구조물·기기 안전성 ▲해일에 의한 구조물·기기 안전성 ▲침식 발생시 전력·냉각·화재보호 계통의 견고성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고리 1호기 및 장기 가동원전 등 국내 원전의 전반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영광원전과 관련해서는 규모 9.0 이상 지진 및 해일 발생시 배관 연

결부의 안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급급 계통, 안전주입 계통 및 증기발전기 세관 건전성 등에서 총 11건의 개선 사항이 도출됐다. 1차 냉각수원이 상실될 경우 대비책으로는 원자로 비상 냉각수 외부 주입유로 설치와 격납건물내 감압설비 설치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시에는 대책 확보 등의 개선사항이 나왔다. 주민 대피시설 및 보호장구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원전주변 10km 인구수에서 16km 인구수로 확대하기로 하고, 원전 인근 주민 보호용 요드화 칼륨과 방독면을 추가 확보한다. 또한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에서 요청할 경우 각 원전 정기검사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보성소방서 도양119센터, 도촌마을과 1사촌 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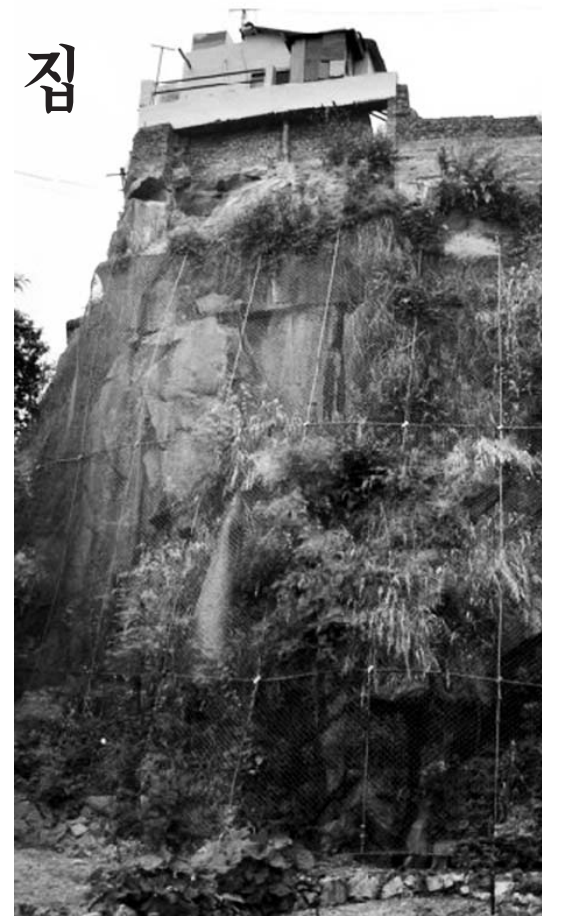
보성소방서(서장 손성기) 도양119센터는 지난 23일 도촌회관에서 하나영농조합법인(고흥군 도양읍)과 도덕면 도촌마을간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 1사촌 자매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기 위한 일환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하나영농조합 법인은 마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했다. 경보기 설치와 유지관리는 마을청년회와 의용소방대에서 맡게 된다. 한편 보성소방서는 안전 나눔운동 확산으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1사촌맺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아슬아슬 절벽위의 집

목포 유달동 60대 부부 생활
장마철 붕괴 위험...대책 절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은 가운데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15m 절벽 위에서 목숨을 걸고 사는 시민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집은 목포시 유달동 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으나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이 집에는 C(68)씨 부부가 살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뱃길로 생계를 꾸려왔으나 지금은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얼마 전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근 한 주민은 “시는 말로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치지 말고 세세한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記者 Notebook

여수상공회의소가 위기를 맞고 있다. 현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 회장 직무대행마저 선임된 지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번 파행의 원인을 여수산단이 정관대로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수산단 대기

만원 이하)까지 선거권수를 가질 수 있다. 지난 2009년 20대 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권수 1412표중 여수산단이 차지한 선거권수는 80%가 넘는다. 메이저 11개사가 607표나 보유했다. 이 같은 선거권수 차등 비율은 타지역 상의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회비 의존도는 더욱 심하다. 여

파행 여수상의 어디로

업은 ‘지역 상공인 중 회장이 없다’며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면 아래 있던 선거권수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여수상의 현 대의원은 총 40명. 5명의 특별한



박성태 <동부취재본부 기자>

수상의 한 해 회비는 약 18억 중 여수산단이 17억 가량을 납부한다. 이쯤되면 ‘산단 상공회의소’나 다를 게 없다. 분명 여수산단은 여수상의의 큰 자산이다. 하지만 여수산단이 상의를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여수산단사들의 회비에 안주해서도 안될 일이다. 여수상의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기형적 구조 개선과 더불어 지역상공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파행의 책임을 놓고 ‘내 탓’ 공방만 일삼아서도 안될 일이다. /mihang@kwangju.co.kr

진도 단호박
500t 日수출



진도지역에서 생산되는 단호박 500t이 일본에 수출된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내 단호박 농가들이 일본 바이어와 올해 단호박 500t(50만박스=5억여원 상당)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21t(3000여만박스)의 단호박을 일본에 수출한 진도군은 올해 500t 수출에 이어 내년에는 1000t의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진도군에서는 현재 50농가가 70여 ha의 단호박을 재배해 연간 8억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서울 가락동 시장 등에서 고품질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진도 단호박은 해충 피해를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FRP 터널 재배로 재배되고 있으며, 제주도 보다 수확 시기가 빨라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연소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자택지 · 협이자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남구 대촌부근 주거지역
●남구 암촌동 한일베라체 주변 대로변 인근 토지 1990㎡(602평). 일반주거지역. 아스팔트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95만원. (술래부 30평 포함)
소택동 잡종지매매
●동구 소택동 대이아파트 부근. 잡종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북개면 국유지 구가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지 매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16만원.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무안 함평 영광 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 개간 가능한 임야도 있음. 10,000㎡ - 70,000㎡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양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 2동.매매가 1억6,000만원. 조양 경관양호.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억원 월세1천3백만원 매매가 20억원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운천저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4층건물 매매가 8억원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대지.전.담.임야
☆.광송간 대로변 대지 : 370㎡ 매매가 : 1억5천
☆.마북동 담3,000㎡ 매매가 7억원
☆.벽진동 담5,600㎡ 매매가 11억원
☆.금호동 담1,600㎡ 매매가 4억2천만원
☆.오치동 대지506㎡ 매매가 4억6천만원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접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광산구 옥동(평동)주거지역 담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광산구 우산동 담279㎡ 매매가 4,200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 매매가 : 4억5천만원
●주유소매매
☆.광산구 오운동 시외에서 시내방향 2복식3대 매매가 9억원(면세유 다량 판매가능)
062-374-5945
010-3162-4989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도곡운천 무인모텔 객실70 감정48억 대출30억 매도38억
●쌍봉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0억7천
●금남로 37가 대로변 건물중의 1층과 2층 109평 감정 15억8천 회사숙. 병환·의원 가능 가격에 협의 바람
●금남로 청암교고점 대로변 땅 247평 중상업지역. 영업장 될 공시지가 13억 투지(차) 좋음 18억
●중흥로 57가 수파건물 대지27 공시지가 1억9천2백 매도 1억9천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감정15억4천 임대된곳은 전세16천만원 월560만원 대출95천 매도9억3천
●유촌동 땅 1632평 창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372 공시지가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중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정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0억3천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원룸.다기주택적합 공시지가 6억8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광산구 주유소 땅470 대출7억 금893천 교회가능
●대인동 계림사당옆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9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대인동 버스도사당 대지63㎡ 공시지가에 매도 1억3400
■매도·교환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중용 1억7500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
●사철부지. 북구 덕의동 광주부 부근 1840평 4억8천
●쌍암동 무인텔 부지 1556평 매도 15억 대출 7억 승계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